다이쇼인 절: 미센혼도

미센 산의 주요 기도소인 미센혼도는 유명한 승려인 구카이(774~835)가 806 년에 100 일간의 혹독한 수행에 정진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 같은 수행은 다이쇼인 절의 창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미센'이라는 산의 지명 또한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구카이가 불교적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슈미센(須弥山)과 닮았다고 하여 산의 이름을 '미센(弥山) '으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센혼도에서는 허공장보살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허공장보살은 지혜와 복덕을 베푸는 부처로서 구카이가 미센 산에서 머무는 동안 허공장보살의 진언을 끊임없이 외웠다고 합니다. 실내의 안쪽 벽면에는 허공장보살상의 양옆으로 두 개의 만다라(불교적 세계관을 묘사한 그림)가 걸려 있습니다. 왼쪽은 불변의 지혜를 나타내는 '금강계'를 의미하며, 오른쪽은 자비의 세계인 '태장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만다라를 합쳐 양계 만다라라고 합니다. 양계 만다라는 다이쇼인 절이 속해 있는 진언 밀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만다라입니다.

초대 미센혼도는 1991 년에 발생한 태풍으로 파괴되었는데, 지금의 미센혼도는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컸는데, 많게는 24 명의 승려가 마루 위에 줄지어 앉아 의식을 거행할 수 있을 만큼 큰 넓이를 자랑했습니다.